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때 : 1994년 6월 3일

곳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강당

주관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주최 : 광주 · 전남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후원 : 광주직할시, 광양제철

안 내

동학농민군 승전기념 역사교육장 기공식

때 : 1994년 6월 4일 10 : 30

곳 :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356번지 일대
(이학승 순의비 부근)

차량안내

광주에서 기공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두 곳에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수송하는 차량이 출발합니다.

09 : 30 도청 앞 광장

09 : 40 전남대학교 본관 앞

자 례

- 인사말씀** 이상식 호남문화연구소장
- 내빈소개**
- 축사** 강영기 광주직할시장
- 기조발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박영석 국사편찬위원장
- 주제발표** 사회 김기주 호남대학교수
- 광주·전남의 동학농민혁명
박찬승 목포대학교수
- 장성황룡촌 전투와 동학농민혁명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장
- 전남동부지역의 농민군 활동
김양식 단국대강사
- 장흥·강진지역의 동학농민군활동
우 윤 백추위간사
- 토론회** 사회 박만규 전남대학교수
- 박맹수 영산대학교수, 박준성 백추위간사
이종범 조선대학교수, 홍영기 순천대학교수
최현식 정읍문화원장 및 발표자 전원

인사말씀

공동대표 이상식 (호남문화연구소장)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영석 국사편찬위원장님을 비롯한 발표자 여러분 광주시장님, 전남대총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전의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많은 생명과 재산을 바쳤으며, 우리의 근현대사가 단절과 왜곡 굴절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던 진실을 학술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반외세의 자주독립과 반봉건의 민주화를 지향한 근대의 서막이요 민족·민주운동의 시발로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시종 앞장섰고 가장 빛나는 승전의 현장이 있으며 최후의 격전지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학술발표회는 동학농민혁명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여 제 자리에 올려 놓은 동시에 광주·전남인의 무지와 무능을 떨쳐 버리고 명예와 긍지를 되찾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발표회를 한층 빛나게 해주시기 위해 멀리서 참석하시어 기초발표를 맡아주신 박영석 국사편찬위원장님,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장님, 우윤 선생님, 김양식 교수님, 박찬승 교수님의 분야별 발표와 토론을 전제해 주실 박맹수, 박준성, 홍영기, 이종범 교수님과 최현식 문화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학술발표회가 시종 진지한 가운데 학술적인 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역사의 재조명이 이루어져 우리 조상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새역사 창조에 밑거름이 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오늘의 학술 발표회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강영기 광주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광양제철 김권식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발표회를 기반으로 하여 동학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빈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사

강영기 광주직할시장

오늘, 국사편찬위원회 박영석 위원장님과 역사문제연구소 이이화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석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학혁명은 反외세, 反봉건의 기치아래 稅政을 바로잡고 비로소 근대화의 시발점을 연 민족의 용트림이었으며, 자주와 독립의 이정표를 바로 세웠던 농민혁명이었습니다.

未完의 동학혁명은 3·1독립운동으로 타오르고, 4·19의거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져, 이제 우리는 자랑스런 文民·民主정부를 수립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밝고 건강한 선진 사회를 이룩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民族史에서 차지하는 位相을 올바르게 자리매김 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고 그늘에 가려있던 동학운동의 前末과 實狀을 제대로 규명하여 의연한 민족의 正氣로 올바로 계승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幸運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박영석(국사편찬위원장)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사회 말기의 극심한 국내적 모순을 극복하고, 나아가 제국주의 열강이 강요한 민족모순까지 한꺼번에 극복하려던 반봉건, 반외세의 저항운동이었다. 이는 일국사적 입장에서 봉건모순을 극복하려던 서구의 농민전쟁의 경우와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경우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대개 농민전쟁을 거치면서 부르주아지의 성장과 함께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는 동학농민혁명 실패 이후 주체적 이행의 과정을 가지지 못하고 일본이라는 외세의 간섭과 통치 속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왔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서구의 그것과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는 넓게는 한국근대사 전반, 좁게는 근대변혁운동에 대한 전반적 시각을 가져야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동학농민운동의 주체나, 지도이념, 지향, 그리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명칭문제에 대해서 연구자간 논란이 많은 것은 단순히 사실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가 아니라 한국근대사에 대한 기본인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근대변혁운동의 흐름에 대해 정리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1. 한국근대의 변혁운동과 동학농민혁명

근대변혁운동사에 대한 이해는 연구자마다 다양하지만 크게 보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개화운동을 근대변혁운동의 주류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이 관점은 일정하게 1960-70년대의 '조국근대화'를 역사적 맥락에서 찾는 근대화론과 맞물려 있다. 개화운동은 실학과 일부 연결되고 개화파의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으로 이어진다. 이 방면의 연구는 개화운동이 가지는 친외세적인 성격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운동의 과정을 미화한 경향이 짙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변혁운동사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 민중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는 민중사학이 등장한 것이다. 민중사학 연구자들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 해결에서의 개화세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근대사의 주역도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 개화파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담당하는 농민세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관점의 연구는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차별성에 주목해 운동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변혁을 위한 농민의 주체적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데다가 근대로의 이행기에서 부르조아 지향의 '위로부터' 개혁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또 하나의 시각은 북한의 연구방식이다. 북한은 이 방면의 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도 이미 1950년대말에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북한의 역사가들은 개화파와 농민세력 모두에 일정하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즉,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농민전쟁을 추동하고 농민전쟁의 영향으로 갑오개혁이 시도되는 식의, 앞의 운동이 뒤에 운동과 항상적으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다. 민중사학의 역사이해의 본질적 경향과는 달리 역사적 사건을 일정한 맥락으로 잇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인식이지만,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주체의 계급적 성격과 그 지향의 차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제국주의 세력이 침략해 오던 19세기 후반 이후 한국근대의 변혁운동은 각계각층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개화운동을 들 수 있다. 개화파는 봉건지배계급내에서 상대적으로 혁신적인 세력이었다. 이들은 견문과 독서를 통해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문명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전근대적 화이관에서 벗어나 우리사회를 서구적인 근대사회로 이행시키고자 했다. 이에 대한 수구세력의 반발도 심해 권력을 장악하는 정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갑신정변의 실패이후 개화파는 몰락하고 정권을 주도할 수 없었지만, 남은 세력의 일부와 정부의 개화정책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관료들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본의 후원 아래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들이 추진한 갑오개혁은 일본에 의해 간섭을 받는 것도 사실이나 그 이전부터 개화파들의 구상이 정치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뒤 독립협회단계에 오면 정치세력으로서의 개화파는 의미를 잃게 되고 개화운동도 상당한 정도로 그 주체세력의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만민공동회운동은 도시 소시민까지도 가담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는 시기에 들어 나타난 애국계몽운동은 상당히 많은 지식인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함에 따라 운동의 범위가 넓어져 갔다. 그리고 이 운동에 가담한 세력의 일부는 3·1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개화운동은 근대화운동이라는 점에서 1960-1970년대 '조국근대화운동'의 한 원형적 형태로 보아 상당히 연구가 진척되어 왔다. 그러나 이 운동에는 역사적 한계가 있다. 친일파의 뿌리를 개화파에서 잡는 학자들로 있듯이 이 운동은 반외세라기보다 오히려 외세에 의존하는 형태의 운동이었다. 물론 김옥균을 비롯한 초기 개화파를 친외

세적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갑신정변 당시의 외압은 일본보다는 청국이 강하게 가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일본 의존적 성향은 오히려 청국세력을 축출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갑신정변 이후 개화운동이 갑오개혁, 독립협회에서 보듯이 외세의존적 자세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독립협회 역시 반러시아적인 자세는 가졌지만 일본이나 다른 서양제국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애국계몽운동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논리인 사회진화론에 빠져 일제의 침략을 오히려 반기는 논리도 나왔다.

개화운동은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반봉건운동이었다. 그러나 반외세, 반봉건을 통해 근대국가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에 외세와 계속 친연성을 가짐으로써 반외세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부인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민족운동세력은 유림을 중심으로 하는 척사운동론자들이었다. 전통적 화이관을 고수하는 이들은 대원군정권 아래 척양척왜운동의 선봉이었다. 그 뒤 개화에 대한 반대나 1880년대 개화운동에 대한 반발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896년 이후에는 의병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었다. 이들은 화이관을 부정하고 근대사회로 나아가려는 개화세력과 당연히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간섭을 통해 우리 사회를 자신들의 침략도구에 맞게 근대적 사회체제로 바꾸려는 일본에 대해서는 격렬히 반발하였다.

대체로 척사세력은 향촌사회의 지배계급이었고, 근대화는 곧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뒤바꿀 위험한 행위였다. 소중화의식에서 중국 이외의 나라, 일본이나 서구세력을 금수로 보았던 척사파들은 이들의 침략과 그 결과로서의 근대화에 반발했던 것이다. 물론 일부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는 세력은 화이관을 바꾸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전통적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병운동에 참여하여 반외세운동을 전개했다. 물론 이 세력들이 반외세운동만 했던 것은 아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민보군을 조직해서 농민군을 직접 탄압하기도 했다. 향촌에서의 봉건적 질서를 흔드는 농민군의 활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운동은 반외세운동으로 나타나 외세의 침략과 강점의 시기에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반봉건 근대화가 요구되는 역사적 조건에서 이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었고, 소멸될 수 밖에 없었다. 이 운동이 일제의 강점 이후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근대변혁운동의 또 한 갈래는 농민항쟁이었다. 농민은 조선후기 이래 지주-소작관계의 질곡, 부세체제의 문란 속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탄압받던 세력이었다. 농민항쟁의 과정에서 나오는 구호는 대부분 관료와 이서배들의 가혹한 농민수탈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농민항쟁은 19세기 전 시기를 거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에 묶여 있는 농민의 성격상 운동 자체가 지역적, 분산적으로 일어나고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사회에서의 농민항쟁은 봉건모순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반봉건이었다.

1862년의 임술반란을 거치면서 인접 군현과의 관련 속에서 봉기하는 등 농민항쟁도 분산성을 극복해 나갔다. 이필제의 난 단계에 오면 나름대로 조직적 움직임속에서 농민항쟁을 전개해 가기도 하였다. 이필제의 난은 지도력을 가진 지식인이 농민을 조직화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이전 단계의 농민항쟁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흔히 동학농민혁명 이전 단계의 농민항쟁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난 것을 운동을 주도할 지식인이 출현하지 못한데서 찾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동학농민혁명의 전단계에 이르는 주요한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봉건모순이 강요하는 질곡이 여전히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가열화하는 가운데 개항이 되자 이후 국내외적 모순이 더욱 가중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1876년의 개항은 조선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가져왔다. 개항 이후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조선은 국내시장을 보호할 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직접 제국주의세력과 대면함으로써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갔다. 자본주의 열강들은 우리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면포 등의 자본제 상품을 팔고 곡물과 금 등을 반출해 갔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조선의 곡물을 유출해감으로써 조선의 국내곡가를 비상하게 등귀시켰다. 더구나 봉건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오전과 같은 악화를 남발했고 그 결과 물가도 계속 등귀했다. 일본으로의 곡물수출이 증가하면서 농업은 쌀과 콩의 단작화로 진행되어 갔다. 지주는 소작료 수입의 확대를 꾀해 지주제를 강화해 가는 추세였다. 지주제의 강화에 따른 소작료의 고율화 등은 소작농민의 경제적 조건을 악화시켰다. 수취체제의 문란을 통한 관료나 이서배의 수탈 역시 개항 이전과 마찬가지로 극심했다. 따라서 농민의 경제적 상태는 벼랑끝에 물리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제기되는 폐정개혁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동학농민혁명 이전 단계 척사파의 반외세운동이나 개혁파의 반봉건운동은 농민층의 현실적 어려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향촌사회의 유림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위정척사론은 반침략의 측면에서 농민층과 일치하였지만 그들의 반외세는 외국자본주의 세력의 침투를 막음으로써 향촌사회에서 봉건적 지배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들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에 대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개화파의 정책도 반봉건노선에서는 같더라도 신분제 철폐 등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으며, 게다가 지주적 입장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농민적 토지소유를 바라는 농민과는 변혁의 지향을 달리 하였다. 조선에서 이

러한 반외세·반봉건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고양되면서 농민층은 외국상인에 의한 자본제 상품의 침투와 봉건지배계급의 수탈로 몰락을 강요 당하던 소상공생산자 및 소상공인들과 연대하여 직접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변혁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후 잔여세력의 일부는 뒤이어 일어난 봉건적 유생들의 의병운동에도 참여하였으나 주체가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지향은 대한제국시기의 각종 민란이나 영학당, 활빈당 등의 활동에 계속 이어져 반외세 반봉건의 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을사특약 이후 일어나는 의병에는 그 이전의 척사론적 유생이 주도하는 형태와는 다른, 농민이 직접 주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3·1운동 당시 각지방에서 일어난 봉기는 대부분이 농민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농민은 반봉건운동의 주체적 세력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반외세운동을 줄기차게 펼쳐온 세력이었고, 사회에서의 여러 변혁운동에서 농민이나 소외된 층이 진정한 주체세력으로 설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2. 동학농민혁명연구의 문제점과 평가

지금 우리가 농민혁명에 ‘동학’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학이 농민혁명이 전개에 끼친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농민혁명에서의 동학의 역할을 높게도, 낮게도 잡지만 동학 그 자체를 외면하지는 않는다. 동학이라는 종교조직이 갖고 있던 전국적 차원의 조직력은 종래 지역적, 분산적으로 나타나던 농민항쟁을 묶을 수 있는 주요한 열쇠가 되었고, 농민의 조직화를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료에 나타나는 ‘僞東學黨’은 교인으로만 이 운동이 전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대체로 동학도가 아닌 빈농들이 많았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김병시도 호남의 농민군에 대해 ‘이들은 모두 양민’이라고 했다. 동학농민혁명이 고양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참가하기도 했지만 그 주된 세력은 하층농민이었고, 동학이란 종교조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쪽이 많았다. 부연하자면 동학의 농민혁명이 아니라 농민혁명에 동학이 기여한 셈이었다. 그런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원인을 논할 때 동학의 사상적 구조에서보다 근대변혁운동과정에서의 농민층의 의식성장과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동학과의 상관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학사상의 내적 원리가 혁명적이고 농민혁명의 지도원리였다고 보고 있고, 동학을 농민혁명과 차단시켜보는 견해는 이 사건의 역사성에 주목한다. 즉, 후자의 경우 조선후기 이래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반봉건 저항과 일제의 침략에 따른 식민지화의 위기라는 상황이 사건을 유발한 가

장 주요한 원인이며, 동학은 운동의 조직화에 기여했을 뿐 주체는 아니라고 한다. 동학사상을 면밀히 검토한 최근의 한 연구는 동학사상이 결코 농민전쟁의 지도이념이 될 수 없는 '정치적空洞性'의 사상이었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세력은 당연히 농민층이고, 그 밖에 소상품생산자나 소상인이 가담하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체가 농민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농민 내부에서 부농이 주도했느냐 빈농이 주도했느냐는 논란의 쟁점이 되었다. 부농주도설은 부르주아적 변혁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부농주도설은 부농의 존재 유무와 전개과정에서 부농이 공격당하던 사정을 들어 비판하였다. 그러나 개항 후 곡물수출로 인한 곡물상품화가 진전되면서 부농이 성장하고 있었고, 1890년 이후 봉건지주층이 지주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출로 인한 부농의 잉여저축을 저지하려 함으로써 잉여의 획득문제를 놓고 상호대립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농민군의 지도부에도 부농이나 상농층이 다수 끼어있다는 몇몇 연구자의 성과는 이 문제를 재고하게 만든다.

그리고 한국근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치 설정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일부 연구자는 동학농민혁명이 근대를 지향한다기 보다 '반봉건', '반자본주의', '반식민주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근대상을 추구했다고 보기도 한다. 일종의 농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셈인데, 근대로의 이행기의 운동이 결코 역사적 조건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친 비약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학농민혁명은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변혁운동이었고, 그것이 성공했다면 당시의 역사적 조건으로 보아 당연히 근대적 민족국가의 수립으로 귀결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연구는 그동안 수많은 논쟁점을 안고 있고, 100주년이 된 올해에 이르러서도 통일된 명칭으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금 학계의 실정이다. 최근들어 농민혁명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오히려 농민전쟁으로 부르는 쪽이 우세하다. 혁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지 못했다는 연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혁명이 혁명일 수 있는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이 방면의 연구자가 많고 연구자들의 역사인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1894년 한 해 일어난 사건으로만 시각을 한정하여 그 의미를 왜소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00년전 동학농민혁명을 지금 되새기려는 이유는 그 사건의 현재적 의미와 그에서 얻는 교훈에 있다. 최근의 동학농민혁명의 연구 붐이 결코 '복고적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의 정신적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대민중운동 과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발전하여야 한다. 현재의 우리는 바로 이같은 과거의 연장

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방의 동학농민전쟁

박 찬 승 (목포대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전라도지방은 1894년 농민전쟁의 진원지이자 본 무대로서 농민전쟁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농민전쟁 연구는 주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지도자들이 이끄는 농민군 주력의 이동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1894년의 농민전쟁의 회오리는 53개주에 이르는 전라도의 전 지역에 영향을 미쳐 그해 여름 이른바 집강소시기에는 전라도 전 지역이 사실상 농민군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 물론 이 시기에도 나주성은 여전히 관측의 수성군이 지키고 있었고, 또 어떤 지역은 농민군이 일시적으로만 성을 점령하고 곧 철수한다든가 하는 양상을 보여 농민군의 세력이 각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기 전라도의 전 지역은 농민군의 세력하에 들어가 있었고, 따라서 이 지역의 향촌사회는 가위 혁명적인 격동을 겪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농민군은 기존의 지배체제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그해 겨울 일본군과 정부군, 그리고 각 향촌사회에서의 수성군·의병·민포군의 반격에 농민군세력이 무너짐으로써 좌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1894년 농민전쟁 연구는 1894년의 격동기의 향촌사회의 모습을 살핌으로써 그 연구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발표에서는 전라도지방 가운데서도 특히 노령(갈재)이남의 남부지방, 즉 현재의 전남지방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이 지역에서의 농민군의 세력분포, 주요 접주들의 사회적 성격, 집강소시기 향촌사회의 상황, 그리고 각지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를 살핌으로써 이 지방에서 있었던 1894년 농민봉기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전남지방 동학농민군의 세력 분포와 지도자들

전남지방에 동학이 처음 전파된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장흥·보성·강진·완도 각 군에 1891년경부터 동학이 포교되기 시작하였다고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¹⁾ 서남해안 일대에 동학이 포교되는 시점은 1890년대 초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필자미상, 「천도교 장흥부 종리원」 『천도교회월보』 163, 1924년 4월호(박맹수,

이 시기 전남지방의 동학은 크게 세가지 교통로를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하나는 고창-영광-함평-나주-무안-해남-강진-장흥-보성-고흥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 연안이며, 다른 하나는 남원-곡성-구례-광양-순천으로 이어지는 섬진강유역, 다른 하나는 정읍-장성-담양-광주-나주로 이어지는 갈재 바로 남쪽의 지역이다.

1894년 당시 전남지방의 농민군세력은 대접주들을 중심으로 몇개의 권역으로 그 세력이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광주·장성·나주지역은 손화중·최경선의 세력권에, 담양·옥과·구례·곡성지역은 남원의 김개남세력권에, 장흥·강진·보성·해남지역은 이방언의 세력권에, 순천·광양·송주·낙안지역은 김인배의 세력권, 무안·함평지역은 배상옥의 세력권에 각각 속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 대접주들 가운데 손화중·최경선·김인배·김개남 등은 모두 노령 이북, 특히 고창·태인·금구지역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대접주 외에도 영광에서 활동한 양경수·송문수·오하영·오시영 등은 모두 고창·무장출신들이었다. 이는 당시 노령 이남지역에서 이방언·배상옥 외에 특출한 대접주를 배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마도 이 지역에 동학이 전파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²⁾

한편 전남 내륙지방, 즉 창평, 영암, 강진, 화순, 능주, 옥과, 구례, 곡성, 완도, 진도 등의 지역은 농민군 세력이 비교적 약했던 곳으로는 보인다. 이는 동학의 전파가 다른 지역보다 더욱 늦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이 지역에 동학전파가 늦었던 것은 이들 지역이 다른 곳보다 외진 곳이거나, 혹은 보수양반세력이 보다 강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면 이 지역 출신 지도자들은 대체로 어떤 이들이었을까. 먼저 이 지역 출신 대접주급에 해당하는 이방언·배상옥이 어떤 이였는지 살펴보자. 이방언은 장흥 용산면 목촌 사람으로 본관은 인천, 당시 2백석 정도의 지주로서 부친은 향교의 齋長을 지냈다고 한다.³⁾ 이로 미루어 보아 그의 집안은 당시 향촌사회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졌던 가문이었음은 분명하다.⁴⁾ 이러한 가문의 배경하에서 그도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멀리 충청도 예산까지 가서 고산 임헌희에게 사사했다고 한다.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사」 『장흥동학농민혁명사』, 1992, 112쪽 참조)

- 2) 전북지방, 특히 평야지대에 동학이 전파된 시기는 대체로 1880년대 중후반 경으로 알려지고 있다(박맹수, 「동학의 교단조직과 지도체계의 변천」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993 참조).
- 3) 이종찬(이방언의 증손) 증언(1994.3.1)
- 4)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동학관련결문집』, 1994, 43쪽에 실린 이방언의 판결문에는 이방언에 대하여 '농업, 평민'이라고 신분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다른 이들의 경우에도 관직을 거치지 않은 자는 모두 '평민'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 이후 재판기록에서는 비록 양반가라 할지라도 관직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평민'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襄相玉(襄奎仁)은 무안 대월리 출신으로 본관은 달성, 신분은 평민, 경제적으로는 소지주 내지 부농정도에 해당하는 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흔히 '함(함평)무안접주'라 불리었으며, 그 세력은 손화중과 맞먹어 전봉준이나 김개남보다 컸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⁵⁾

이같은 대접주들 아래에서 그 다음의 세력을 가졌던 접주로는 나주의 오권선·전유창, 담양의 남응삼, 홍양의 유복만, 함평의 이화진, 영광의 양경수·송문수, 해남의 백장안, 장흥의 이사경, 장성의 이장태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권선은 당시 나주 삼가면 도림·세동·송동·나동에 세거하던 나주 오씨들의 동족 부락 세동출신으로 어려서 부친이 읍내에 들어가 한 때 서당훈장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며, 성장해서도 초가 두칸의 집에 살고 있던 몰락양반에 속하는 이였다고 보인다. 그의 일가 가운데에는 부자들이 있어 같은 마을의 吳碩煥은 오권선을 통해 농민군 측에 상당액수의 자금을 대기도 하였고, 이웃 도림마을의 吳駿善은 나주수성군 측에 군량미를 대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오권선은 이들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식층이었던 것이다.

李化辰은 함평 손불면 장동사람으로 본관은 공주, 경제적으로는 중농정도, 지식층으로서 부친, 형과 함께 농민군활동을 주도하다가 모두 처형당하였다.⁷⁾ 奎有翰은 나주 노안면 동산사람으로 본관은 천안으로 전봉준과 같은 섬씨라해서 일찌기 전봉준이 집에 찾아온 일이 있을 정도로 가까웠으며, 동생 전유원과 함께 백산봉기에서부터 참여했다. 상당한 부자였다고 하나 신분은 평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장흥 부산면 용반의 이사경은 부친이 이미 접주로서 이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마련해온 '대물림접주'로서 상당한 규모(수백석?)의 '서민지주'였던 것으로 보인다.⁹⁾

해남의 白長安은 대흥사 바로 앞의 삼산면 구림리 사람으로 부친 백용담은 선원록청의 書寫와 巡將을 지낸 바 있었고, 백장안 자신은 1888년 武科 丙科에 급제하여 흔히 '백선달'로 불리던 이였다. 그는 해남의 삼산면접, 비곡면접, 현산면접, 그리고 남문 밖 남동리의 농민군세력을 이끌고 우수영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후일 완도에서 붙잡혀 해남으로 끌려와 처형되었다.¹⁰⁾

5) 나주 목사 민종렬은 양호순무선봉장 이규태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장 손화중과 무안 배상육은 각기 그 거느리고 있는 무리가 수만에 이르러 전봉준이나 김개남과 비교할 때 몇 배에 달한다고 쓰고 있다(「이규태왕복서 및 묘지명」, 『동학란기록』 하, 503쪽).

6) 오학수씨 증언(1994. 5. 5) ; 이병수, 『금성정의록』 참조

7) 이경보 면담(1994. 4. 26)

8) 전대성씨(전유원의 손자) 면담(1994. 5. 5)

9) 이정태(이사경 증손) 면담(1994. 2. 25)

10) 白鍾南(백장안의 증손)씨, 白一萬씨 증언(1994. 5. 12) 및 「敎旨」 「紅牌」 등 고문

다음 이러한 중간접주들 외에도 소접주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체로 각 면 정도의 권역에서 일정한 세력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들 가운데 몇몇 신원이 확인되는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함평 갈동면의 鄭安冕은 최근 발견된 고문서에서 함평 갈동면 접주로 확인되는 인물이다.¹¹⁾ 그는 갈동면(현 월야면) 양정리 양지부락 사람으로 본관은 나주, 신분은 평민, 비교적 부유한 편으로 지식층이었다고 한다.¹²⁾ 광양 옥룡면 상평의 徐允若·徐亨若형제는 광양 옥룡면 운평리 상평 사람(본관은 이천)으로 집터만 3백평, 담살이를 12호 거닐릴 정도로 옥룡면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한다. 그의 부친 徐志殷은 옥룡면 面首부터 시작하여 民庫都監, 사헌부 감찰, 충훈부도사의 교지를 구할만큼 신분상승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였다.¹³⁾ 무안 해제 석용리의 崔文彬·崔善泳형제는 중농정도로서 비교적 지식층으로 꼽히는 이였다고 한다.¹⁴⁾ 이러한 사례들은 소접주 가운데에도 부농 내지 소지주층이 상당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외에 아마도 빈농 혹은 천민층으로서 소접주가 된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어 구례 사적동의 임정연의 경우 그는 본래 丹城출신의 巫人으로 알려졌다.¹⁵⁾ 담양 용구동의 접주 金亨巡은 갑오년 7월 달양의 아전으로서 수성군을 조직하려 한 鞠弘烈을 잡아다 죽임으로써 '强接'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빈농으로서 완력이 강한 이였다고 한다.¹⁶⁾

3. 1차 봉기와 집강소시기 전남지방의 상황

1894년 3월 전봉준·손화중·김개남 등이 무장에서 집결하여 고부 백산에서 창의를 선포하였을 때, 전남지역의 동학교도들도 상당수 농민군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오지영의 『동학사』에서는 영광·무안·장흥·담양·창평·장성·능주·광주·나주·보성·영암·강진·홍양·해남·곡성·구례·순천 등지의 동학교도들이 참여했다고 적었다.¹⁷⁾ 이 기록

서 참조.

11) 靑·풀생활사박물관 소장

12) 정무석씨(정안면의 증손) 증언(1994. 5.5)에 의하면 정안면은 돈녕부도정의 교지를 갖고 있었다 한다. 이는 그가 신분상승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한다.

13) 서형식씨(서윤약의 증손) 면담(1994. 4. 5)

14) 최석봉(최문빈의 손) 면담(1994. 4. 2)

15) 『구례속지』(1924)(박준성, 「농민군활동지 곡성·구례」 『예향』 1993년 6월호, 123쪽 참조)

16) 용구동(현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주민들의 증언(1994. 3. 18, 노인회관)과 김종덕씨(김형순 후손) 증언 참고. 황현은 호남의 强接으로서 남원의 화산당접과 담양 용구동접을 꼽았다(『오하기문』 2필).

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장흥의 이방언세력, 무안의 배상 옥세력은 당연히 참가하였을 것이다. 이방언은 이후 황룡강전투에서 장태를 고안한 이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또 옥과의 경우에는 4월 9일 농민들이 옥과현을 습격하여 관곡을 약탈한 뒤 정읍방면으로 향하여 갔다고 한다.¹⁸⁾ 홍양의 유복만도 후일 전주화약 뒤에 김개남을 때라 남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 1차 봉기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순천의 경우에도 유하덕이 백산봉기에 참여했다가 6월에 금구출신의 김인배와 함께 순천에 돌아와 영호대도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남지방의 동학교도들은 1차 봉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1차 봉기가 전주화약으로 일단 소강상태에 들긴 이후 1894년 7월 6일 전봉준과 김학진의 대타협은 官民相和의 원칙위에서 집강소 설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학진은 농민군 대도소를 전주성 내에 두는 것을 허락하였고, 전봉준은 농민군을 총지휘할 전라좌우도 대도소를 전주성 내에 설치하고 宋薰玉을 도집강으로 임명하였다. 이후 전라도 각 주에는 집강소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수령과 집강이 함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물론 이 때 각 주의 양상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체로 각 주에서의 실권은 역시 농민군측에 있었다고 보인다.

각 주에서의 집강소 설치의 실례를 살펴보자. 해남의 경우, 농민군 2,200여명이 7월 16일 해남읍에 입성하여 집강소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집강소에서는 양반부호가에서 금전을 거두어 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농민군의 군량미로 충당하였으며, 조총·천보총·환도·화약·연환 등을 거두어 무장을 갖추었다.¹⁹⁾ 다른 군현의 경우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는 자료가 없지만, 비슷한 형편에 있었던 곳들이 많았으리라 여겨진다(예를 들어 순천·광양). 박기현의 『日史』에 의하면 나주와 강진을 제외한 전라도 모든 주의 읍에 都所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들 읍단위의 집강소 아래에는 각 면단위의 집강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 군현에 몇 개의 접이 있는 경우 각 접별로 집강소가 설치되었던 것이다. 최근 발견된 함평 갈동의 집강소에 관한 문서를 보면, 갈동면(현 월야면)에 집강소가 설치되어 접주 鄭安冕이 집강을 겸하였고, 그 아래에 다시 5명의 집강이 있었다. 이들은 아마도 각 로단위의 집강을 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²⁰⁾

그런데 성내에 도소(혹은 집강소)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농민군이 성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민군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곳은 성내는 아직 수령과 이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다만 수령과 이교들은 농민군이 언제 성내로

17)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22-23쪽

1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6쪽

19) 「道人經過來歷」(짚풀생활사박물관 소장)

20) 짚풀생활사 박물관 소장

공격해 들어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농민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군세력이 비교적 약했던 영암, 창평, 화순, 동복 등 전남 중부지방은 대체로 이같은 상황하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강진·능주 등 일부 지방에서는 이교들이 거짓으로 동학에 입도하여 스스로 성내에 都所를 차려 성밖의 농민군들이 성안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²¹⁾ 그리고 이들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해 10월 농민군의 주력이 북상한 뒤, 혹은 농민군이 공주에서 패전한 뒤 곧 수성군을 조직하여 농민군 진압에 나섰던 것이다.

나주의 경우는 처음부터 농민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농민군의 성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곳이다. 나주목사 민종렬은 오히려 수성군을 강력히 조직하여 농민군에 대항하고 나섰다. 이에 농민군은 7월 5일 최경선이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권선과 함께 나주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나주성은 천혜의 요새지여서 공격이 여의치 않았으며 수성군의 병력과 무기도 만만치 않았다. 7월 27일 최경선은 다시 나주성을 공격하였으나 결국 패하였다. 이에 8월 13일 전봉준이 직접 전라감사 김학진의 신임을 지니고 나주성내에 들어가 나주목사 민종렬과 담판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농민군은 그해 여름 나주를 끝내 손 안에 넣지 못하였던 것이다.²²⁾

이상 1894년 7-8월 집강소시기 전남지방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 시기 농민군의 조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농민군 조직의 근간이 되었던 동학조직은 기본적으로 接(혹은 包)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 接이 있던 곳에는 都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접주 밑에는 하급간부로서 接司·省察·禁察 등의 직위와 敎長·敎授·都執·執綱·大正·中正 등의 직책이 있었다.²³⁾ 이들 하급 간부들도 어느 정도는 문식이 있는 이들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각 면·리에서 執綱 등으로 발탁된 이들은 원래 동학교도가 아닌 이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한편 이들의 지휘아래 움직이고 있던 일반 농민군들은 사회적으로 평민·천민, 경제적으로는 영세농민·영세상인·영세수공업자 등이었을 것이다.

4. 2차 봉기시 전남지방에서의 주요 전투

21) 박기현, 『日史』 갑오 7월

22) 이병수, 『금성정의록』; 오지영, 『동학사』(초고본) 등 참조.

23) 이들 각 직책의 임무에 대해서는 「전봉준공초」에 자세하다. 다른 곳에서는 계급으로서 대접주·소접주·사접접주·접사·省察·禁察, 직책으로서 敎長·率敎·執綱·大正·中正·奉道 등을 들기도 하였다(『일본공사관기록』6, 24쪽).

24) 예를 들어 나주, 완도의 경우(최근 발견된 고문서 「羅州名錄」; 김상철, 『枕泉先生自敘行錄』)가 그렇다.

전라도 남부지방에서의 주요 전투로서는 1차 봉기시의 황룡촌전투, 집강소시기부터 2차봉기시에 걸친 나주성전투, 2차봉기 이후 순천·광양전투와 장흥·강진전투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널리 알려진 황룡촌전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다른 전투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것처럼 나주는 집강소시기에도 호남지방에서 유일하게 관측이 농민군세력과의 타협을 거부한 곳이었다. 9월 중순 농민군의 2차 봉기가 시작되면서 전봉준은 손화중으로 하여금 상경하는 농민군의 배후가 될 광주·나주지방의 방비를 맡겼다.²⁵⁾ 공주에서 전투가 시작될 즈음인 10월 20일 광주·영광·함평·나주 일대의 농민군은 황룡강변의 선암장에 집결하여 나주성공격을 준비하였다. 이에 민중열은 선수를 치기로 작정하고 수성군을 성밖으로 출정시켰다. 침산과 선암에서 21일 벌어진 전투에서 농민군은 수성군의 우세한 화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다. 11월 들어 공주부근에서 농민군이 계속 밀리는 가운데 이제 농민군에게 나주성점령은 배후거점의 확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손화중은 광주·나주·장성일대의 농민군뿐만 아니라 고창·흥덕등지의 농민군에게까지 원병을 청하였다.²⁶⁾ 수성군은 이에 농민군의 토벌을 위한 2차 출정을 단행하여 11월 11일 농민군이 집결하고 있던 황룡강 상류 두동쪽으로 진출하였다. 농민군은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용진산으로 이동하여 전투는 13일 용진산에서 벌어졌으나, 화력의 열세와 훈련미숙으로 인해 이번에도 농민군이 역시 패하고 말았다.²⁷⁾

11월 17일에는 함평·무안일대의 농민군들이 배상옥의 지휘하에 나주성공격에 나서서 나주성의 남쪽 방면인 고막원에 집결하였다. 이에 수성군은 다시 고막원에 진출하여 역시 농민군을 패퇴시켰다. 23일에는 오권선이 이끄는 농민군의 나주성공략이 마지막으로 시도되었다. 농민군은 나주성인근의 남산촌까지 진출하여 접근전을 폈으나 역시 패하고 말았다. 결국 농민군은 나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이후 최경선은 남평을 거쳐 능주·동북방면으로 후퇴하여 동북 수성군과 접전을 벌여 패배하여 그곳에서 잡혀 나주로 압송되었다.²⁸⁾ 이때 동북의 수성군을 지휘한 것은 오상윤·오계련·오계엽·오윤술 등 동북의 유력한 향리들이었다.²⁹⁾ 한편 고막원 전투에 무안·함평 농민군을 동원하였던 배상옥은 12월 8일 농민군 해산을 선언하고

25) 일부 기록에서는 전봉준이 손화중에게 복상을 명령하였으나 손화중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전봉준과 손화중, 최경선간의 평소의 관계로 보아 이는 신빙성이 없다.

26)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567쪽

27) 『금성정의록』 참조

28)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72쪽

29) 홍성찬, 『한국근대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지식산업사, 1992, 29-30쪽

해남으로 도피하였다가 검거되어 처형되었다.

순천·광양지역의 농민군들은 금구에서 파견된 김인배의 지도하에 순천에 영호대도를 설치하고 순천의 유하덕, 승주의 정우형 등이 농민군을 이끌고 있었다. 이들은 집강소기에는 관측과 타협국면을 이루고 있어 큰 충돌은 없었다. 8월말에 이르러 남원의 김개남 등이 영남으로의 진출을 결의하는 가운데 그 선봉으로서 김인배가 이끄는 순천·광양의 농민군은 9월 1일 하동·진주방면으로 진출하여 이곳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19일에는 양하일이 이끄는 순천의 농민군이 낙안을 장악하였다. 농민군은 이어서 좌수영을 공격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진주방면에서 경군과 일본군의 반격이 시작되어 진주의 농민군은 하동방면으로 후퇴하여, 10월 20일부터 하동의 섬진강변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22일 농민군은 큰 피해를 입고 광양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1월 20일 순천의 농민군은 다시 좌수영을 공격하였는데, 좌수사가 여수 앞바다에 정박중이던 일본군함 쓰쿠바호에 구원을 청하여 26일 일본군이 상륙함으로써 농민군은 일본군과 좌수영 연합군에 패배하고 말았다. 사태가 점차 농민군에 불리해지자 12월 6일 순천의 아전들이 중심이 되어 수성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측을 습격, 정우형을 비롯한 농민군 53명을 죽였다. 8일에는 좌수영의 군대가 순천방향으로 돌아와 각면의 접주들을 비롯한 농민군 약 4백여명을 죽였다. 광양에서도 12월 7일 전 군수 김석우와 아전들이 중심이 되어 수성군을 조직, 농민군측을 습격하여 김인배 등 농민군지도부는 사로잡혀 처형되었으며, 이후 며칠동안 각 면의 접주들에 대한 수색과 토벌이 시작되었다. 9일 좌수영군과 하동방면에서 온 일본군은 섬진강변, 옥룡면, 섬거역 등지에서 전투를 벌여 농민군세력을 섬멸하였다. 이어서 광양으로 들어간 일본군과 좌수영군은 농민군을 철저히 수색하여 수많은 농민군을 처형한 것으로 전해진다.³⁰⁾

전라도 남부지방에서의 농민군의 최후 저항은 장흥·강진·해남일대에서 시도되었다. 용산면 묵촌의 이방언과 부산면 용반의 이사경에 의해 지도되는 장흥의 농민군세력은 7-8월 자라번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7월 30일 부임한 장흥부사 박헌양은 부임 직후부터 유림들과 농민군토벌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등 시기를 엿보고 있었다. 한편 강진 병영에서는 10월 1일 이곳에 설치된 동학도소를 철폐하고 수성소를 설치하는 등 농민군과의 대결태세를 나타냈다. 그런 가운데 공주전투와 나주전투의 연이은 패배소식이 전해지고 이곳 농민군들은 장흥일대를 농민군 최후의 거점으로 확보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장흥일대의 농민군 수만명은 11월 26일 이방언·이사경·이인환 등이 회령진(현 보성군 회천면)에 집결하여, 12월 4일 벽사역을 점령하였으며, 다음 날 장흥성을 공격, 점령하였다. 이 과

30) 국사편찬위원회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참조

정에서 장흥부사 박헌양 등 수성군 96명이 전사하였다. 농민군은 여세를 몰아 7일에는 민보군(김한섭 지휘)이 지키고 있는 강진을 점령하였으며, 10일에는 병영성을 공격, 점령하였다. 장흥·강진·병영성의 함락소식은 당시 나주부근까지 남하하고 있던 경군과 일본군에 곧 전달되었다. 이에 나주에 머물고 있던 우선봉진의 이규태군은 12일 강진을 거쳐 장흥으로 들어오고, 일본군은 유치방향을 거쳐 15일 장흥으로 들어오며, 순천에 머물고 있던 좌선봉진의 이두황군은 20일 장흥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로써 12일부터 이규태군과 농민군 사이에 1차 접전이 시작되었는데, 농민군은 이규태군의 우수한 화력에 밀려 장흥성을 내주고 자울재를 넘어 고읍(관산)방면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일 농민군은 다시 자울재를 넘어 석대들을 가득 메우며 장흥부로 공격해 들어왔으나 이규태군과 일본군의 연합부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농민군은 다시 자울재를 넘어 후퇴하여 4,5천명이 옥산리(현 관산읍 옥당리)에 재집결하여 17일 최후의 항전을 벌였으나 여기에서 다시 백여명이 희생되고, 나머지는 천관산쪽을 거쳐 강진, 대구방면으로 흩어져갔다.³¹⁾ 일단 흩어진 농민군은 다시 해남방면에 집결하여 12월 18일 해남읍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당일 이규태군이 해남읍에 도착, 농민군을 격퇴함으로써 농민군은 뿔뿔히 흩어져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과 관군은 장흥지역에서 300명, 강진지역에서 320명, 해남지역에서 250명의 농민군을 붙잡아 처형하였다고 한다.³²⁾

5. 맺음말

전남지방의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경과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남지방의 동학농민군은 1894년 봄 백산에서의 제1차 봉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황토재전투, 황룡촌전투의 승리에 큰 구실을 하였다. 또 전주화약 이후에는 각지에 도소와 집강소를 설치하여 전라도 전역이 실질적으로 농민군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2차 봉기 때에는 북상하는 농민군 주력의 후방에서 이를 후원하면서 서남해안을 방비하였으며, 농민군이 패퇴하는 상황에 처하자 최후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였다. 10월 이후의 나주성 재공격, 장흥 석대들전투, 광양·하동전투 등에서 농민군은 큰 희생자를 냈다. 경군과 일본군 측은 이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농민군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이미 해산한 농민군들을 철저히 수색하여 엄청난 수를 처형하였다.

31) 박맹수, 주 1)의 글 참조.

32) 국사편찬위원회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62쪽. 그밖에도 처형된 농민군은 나주부근에서 230명, 함평·무안·영암·광주·농주·담양·순창·운봉·장성·영광·무장 등지에서 각가 30명 내지 5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동학농민전쟁과정에서 나타난 장성전투의 의미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1. 동학농민전쟁과 전남세력의 호응

1894년 3월 20일(음력) 무장에서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어 백산에서 대집결을 하였을 적에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전라도 지역의 34개 군현에서 각 지역 장령(將鈴)들이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 34개 군현 중에 지금의 전남지역은 영광, 함평, 장성을 비롯 무안, 장흥, 순천, 구례 등 17개 지역의 농민군 지도자 명단이 나타난다³³⁾.

이 숫자는 참여 군현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 군현은 훨씬 더 많았던 것이다. 그 예로 초기부터 활동한 화순, 광양 등지의 농민군 지도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장성의 두령으로 김주환(金柱煥), 기수선(奇守善)³⁴⁾, 기동도(奇東濤), 박진동(朴振東), 강계중(姜戒中), 강서중(姜瑞中) 등이 등장한다. 김씨, 기씨의 등장이 주목된다.

1894년 9월 2차 봉기가 단행될 적에 전라도 31개 군현의 장령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지금 전라남도 지역으로는 장흥, 창평, 장성, 능주, 광주, 보성, 나주, 영암, 강진, 구례, 해남, 곡성, 영광, 홍양, 순천 등 15개 지역이었다³⁵⁾.

특히, 2차봉기 무렵, 전남지역은 일본군의 해상 침투를 막기 위해 손화중, 최경선 등이 공주전투에 합류치 않고 광주지방에서 농민군을 이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참여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주전투 이후 광주, 나주, 강진, 장흥, 해남, 무안, 순천, 여수, 광양에서 큰 전투들이 있었고 주력군의 잔여세력들이 이들 지방에서 무수한 희생을 치렀다. 어떻게 보면, 전국의 지역중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위의 해안지방에서 나왔고 보아야 할 것이다.

33) 오지영 「동학사」의 제 2장 「동학란과 고부합락」, 「천도교 교회사초고」에는 18개 군현만이 기재되어 있다.

34) 2차봉기 때는 기수선(奇守善)이 장성 지도자로 등장한다. 김주환(金柱煥)의 한자 이름은 김주환(金柱煥)으로 기재되기도 한다.

35) 「천도교 교회사 초고」 갑오년조. 위 「동학사」에는 27개 군현에 전남지역이 13개 군현으로 나타났다. 장성의 두령은 1차봉기때와 한자가 다를 뿐 동일하게 나타난다.

2. 친군무남영과 장위영의 군사규모

농민군은 고부일대에서 친군 무남영(親軍武南營) 및 향병(鄉兵)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어 장성에서는 장위영(壯衛營)의 선발대와 향병과 접전을 벌여 또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그 전말을 살피기 전에 호남방어의 중심 군대인 무남영과 가장 강력한 중앙군인 장위영의 규모를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80년 초 친군영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에 5영을 두었다. 이어 지방에도 친군영을 설치하였는데 평양, 해주, 강화도, 대구, 전주, 동성, 청주, 춘천 등지였다. 전주에는 1893년 친군무남영이라는 이름으로 방어군을 두었다. 그 조직은 영사(營使) 이하 약 천여명으로 구성케 되어 있었다³⁶⁾. 그러나, 무남영군은 이런 기본조직과는 달리 정식의 군대는 3백명이었고, 장관(將官)과 잡역이 7백여명이었다. 다시 말해 정식군대보다 잡역이 배수나 많았던 것이다.³⁷⁾ 그것도, 훈련병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군율이 없었고 또, 각 군현에 백일(百一)의 세를 거두어 거의 착복하는 통에 월급이나 경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장위영은 복잡한 개편을 거쳐 탄생하였다. 1888년 중앙군인 친군영을 총어(摠禦) 통위(統衛) 장위 경리(經理) 등으로 개편하였다. 장위영은 좌영의 임무를 맡았는데, 장위사 이하 지휘관 및 잡직이 3백 49명, 병정과 작대병(作隊兵)이 4천 2백 10명이었다³⁸⁾. 그러나, 기본조직과 정원은 규정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다.

다시 말해 4영 또는 3영의 조직이나 정원대로 경비를 염출할 수가 없었던 데에 기인한 듯 하다. 군사마인 최영년은 “서울에서 총리, 총제 두 군영을 새로 설치하여 각 군현에 수세하여 증액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호남의 지세(紙稅), 죽세(竹稅)와 해구의 잡세 같은 것은 이루 기록할 수도 없었다.”³⁹⁾고 말하였다.

그러나 장위영병은 서울방어, 특히 궁궐호위를 맡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다. 그런 탓으로 재래식 무기가 아닌 청과 일본에서 수입해온 크루프포 신식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 무기와 장비에 있어서 무남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36) 「한군군제사」(육군본부)

37) 「동학란기록」, 上 「동동문변」

38) 「한국 군제사」(육군본부)

39) 위 「동도문변」

3. 황토현전투와 이동과정

장성전투에 앞서 황토현전투와 농민군의 이동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① 황토현 전투

동학농민군은 백산에 집결해 있다가 원평 금구로 진출하였는데 이는 전주공격을 목표로 한 행동이었다. 이에 감사 김문현은 무남영의 좌영관 이경호에게 방책을 물었다.

이경호는 “동진강의 험한 입구를 파수하여 진두(津頭)의 통로를 끊고 백산쪽에 둔 병하고서 양곡 운반의 길을 끊는다면 열흘도 못되어 도둑을 사로 잡을 수 있다.”⁴⁰⁾고 말했다.

아주 농민군을 하찮게 본 것이다. 김문현은 무남영의 대관 이재섭에게 무남영의 초병과 각읍의 포군을 거느리게 하고 송봉희에게 도내의 보부상을 거느리게 하여 서문 밖 옹두머리를 지키게 하였다.

이어 이경호에게 좌초병과 각읍의 포군을 거느리고 금구길로 나가게 하였고 도한인 별초군(別抄軍), 유상(油商)인 수초군(水抄軍), 지소인(紙所人)인 산초군(山抄軍)을 편성하여 동원하였다.⁴¹⁾

계속해서 각군의 포군 보부상 무부 등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고부쪽으로 물린 숫자는 무남영병 7백, 토병 5백 60, 또는 장정 수 천, 보부상 천여명이라 하였다.⁴²⁾

이때의 양쪽 사정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다.

“관군이 서쪽으로 갈 적에 향병과 영병이 뒤섞여 행군하였다. 그런데, 영병은 이른바 연습 병대여서 싸운 경험이 없었고 향병도 다들 바가 없이 교만하고 사납기만 하여 살 수가 없었다. 행군할 적에 연도에서 약탈을 일삼고 점포는 부수고 행상을 겁탈했다. 마을에 짝 깔려서 닭과 개를 모조리 잡아 먹어서 백성들이 이를 갈며 피했지만 장령들도 기율이 없이 칼만 손에 뽑아들고 행군만 몰아갈 뿐....”

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도둑들은 영읍에 원한을 가지고 또 관군의 횡포를 한스러워 하여 관군이 하는 짓을 뒤집어 놓았다. 군령을 행해 금지하고는 추호도 범하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행군할 적에 쓰러진 보리를 세워 주었다.”

40) 앞과 같음.

41) 황현의 「오하기문」 수필.

42) 위 「동도문변」

또 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때 영병과 향병은 모두 양식을 가지고 가지 않아 백성에게 밥을 토색하거나 먹을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 도둑의 진영은 광주리가 연이어졌으나 관군은 주려서 허덕였다.”⁴³⁾

이것은 그 기율로 보나 민심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나 관군이 이미 진 싸움이었다. 이경호가 백산주변에 도착한지 만 4일만인 4월 7일 새벽 황토재에서 일대 결전을 벌였으나, 이경호 이하 관군은 무수한 시체를 남기고 흩어졌다.

이 싸움에서 농민군은 흰옷을 입은 향병은 추격하지 않았고 검은 옷 입은 영병과 붉은 인주를 등에 붙인 보부상만을 추격했다 한다. 이렇게 해서 농민군은 전라도의 관군측을 여지없이 깨부서 재기불능의 타격을 안겼다.

② 농민군의 남하

농민군은 황토재 전투의 승리를 기록하고 남하작전을 폈다. 농민군들은 정읍에 들이 닥쳐 관사와 이교(吏校)의 집을 불태우거나 헐어버리고 보부상이 주접하는 점막도 태워 버렸다.

이어 삼거리와 흥덕을 거쳐 고창·무장을 함락하고 영광에 머물렀다. 이에 동학사에 세는 “이때 동학군의 뒤를 쫓던 관병들은 고부 흥덕 무장 등 읍을 거쳐 영광 군저(郡底)까지 따랐으나, 동학군은 일방 앞서가며 성을 만나는 대로 함락을 시키고 군기 등물을 거두어 가지고 보일만 말만하게 앞을 서서 남으로 남으로 향하여...”라고 기술하였다.

농민군은 함락시킨 고을에서 양곡을 거두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억울한 죄인을 풀어주고 무기를 거두어 사용하고 못된 아전과 토호를 징치하였다.

농민군은 영광에서 6일을 머물다가 4월 18일 함평에 주둔했다. 농민군의 함평 주둔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곳에서 농민군은 기율을 다지고 농민군 진지 주변에서 배회하는 혐의자를 죽여 관군의 밀정 침투를 막았으며 또 진세를 벌여 깃발과 행군을 정비했다. 그리고 나주 공형(公兪)에게 글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 나주에는 영장과 각읍의 모군(募軍)이 방어하고 있었는데 나주목사 민중열은 이 제의를 거부했다.

한편 뒤따라오는 초토사 홍계훈에게 글을 보내 대의를 밝히고 폐정의 조목도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글은 농민군이 최초로 관변에 보낸 것으로 그 거사 동기를 천명한 것이다⁴⁴⁾.

43) 위 「오화기문」 수필

44) 앞과 같음.

4. 장성전투 승리의 실상

이렇게 이들은 왜 남하했는가? 그 까닭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장위영병의 동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① 장위영병의 진군

장위영병의 5대가 군산포를 거쳐 전주에 도착한 것은 4월 7일이었다⁴⁵⁾.

그런데, 전주에 입성할 적에는 320여 명이 도망쳐서 470여 명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4월 7일은 바로 황토재 전투가 있던 날이었다.

홍계훈은 농민군의 동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즉각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전주에서 머물며 영장 김시풍 등이 농민군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씌워 처단하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홍계훈은 일부의 군대를 선발대로 태인, 무장 등지로 내려보내고 떠전을 피우다가 4월 18일야 본대를 이끌고 출동했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강화도 수비병 400명을 증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홍계훈의 군대는 4월 21일야 영광에 도착했다. 농민군은 이 무렵 함평에 머물고 있었다. 아래 농민군 쪽에서는 홍계훈의 동정을 파악하고 앞에 말한 「원정서(原情書)」를 보내며 자기들의 거사동기를 표방했다. 그리고는 홍계훈이 영광에 도착하던 날 장성으로 발길을 돌렸다.

농민군은 나주공형에게 경고문을 보내기만 하고 함평·나주의 사잇길로 빠져 나와 장성으로 진출했던 것이다.⁴⁶⁾ 이것은 바로 홍계훈의 허를 찌른 것이다.

홍계훈은 이 「원정서」를 받고 조정에 “말이 불궤(不軌)한 것이 많고 뜻이 극히 해괴하다”고 보고하면서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들을 선유하기 위해 왕의 윤음을 들은 이효응, 배은환 등의 종사군관을 농민군 진영으로 보냈다.⁴⁷⁾ 싸우기 전에 이들을 왕의 윤음으로 해산시켜보려 한 것이다.

홍계훈은 이때까지도 자기 휘하의 군졸이 도망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또 그는 농민군이 장성으로 진출한 사실을 알고 대관 이학승, 원세록, 오건영에게 각기 1대씩을 딸려 장성으로 보냈다. 그 자신은 영광에 머물고 있다가 총제영병(강화 수비병)이 법성포에 도착한다는 보고를 받고 23일 군관등을 법성포로 보내 맞이케 하

45) 홍계훈, 「양호초토등록」, 이때 군사의 규모는 장위영병 3백, 심영병 5백명이었다 한다. 1대는 약 60여명이다.

46) 오지영 「동학사」에는 이때 “무안·영암·강진 지계까지 아주 조선 남방 끝간 곳까지 쫓기어 나려갔다.”고 기술했으나 오류이다.

47) 「양호초토등록」

었다.

그 자신은 강화도 수비병과 합세할 계획 아래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전술일 수도 있으나 겁장이의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아물든 강화도 수비병 4백여명이 합류해 오자, 그는 한결 마음이 놓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날 저녁 무렵 간담이 서늘한 보고를 받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② 장성전투 승리의 실상

농민군은 21일 장성에 도착하여 월평(月坪)의 삼봉(三峯)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다. 농민군은 영광, 함평에서 부터 그 숫자가 불어나 있었는데 황현은 이때 농민군의 숫자를 만여명이라고 했고 전봉준은 4천여명이라고 했다.⁴⁸⁾

월평은 이 일대에서 큰 장이 서던 곳이다. 또 이곳은 앞에는 황룡강이 가로 놓여 함평, 영광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삼봉이 자리잡고 있다. 전강배산(前江背山)의 전술적 지형이었다. 농민군은 이런 곳에 진을 치고 이를이나 머물고 있었다. 다시 말해 바로 북상하지 않고 진용을 갖추고 결전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홍계훈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선발대 3백여 명을 보내면서 농민군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지, 전투를 명령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홍계훈은 또하나의 꾀를 내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

“지방군으로 앞장을 세워 싸우게 한다. 왜냐하면 지방군은 경군과 서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탓으로 초토사를 원망하여 내분의 변이 있을까 두렵다.”⁴⁹⁾

홍계훈이 자신의 부대와 무남영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데 차별대우를 하여 무남영군 또는 향병의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군의 불안이 고조되었는데 이 지방군을 총알받이로 삼고 자신의 군사를 보호하려는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군 3백여 명에 상당수의 지방군이 장성전투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때 전봉준은 경군의 숫자를 7백여명이라고 말했는데 지방군의 숫자를 합해 말한 것일 수도 있겠다.

아물든 이학승은 장성지경에 들어왔으나 지리에 어두웠다. 그는 머뭇거리며 월평 건너편에 이르니 4방에서 농민군의 모습이 보였다. 이학승은 나갈 수도 물러 갈수도 없어서 일단 격문을 보내 회유하려 들었으나 농민군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학승은 농민군 측의 숫자가 워낙 많고 또 선제공격을 받을 것을 염려했다. 그리하여, 대포를 먼저 발포했다. 이 대포는 황룡강을 건너 날아가 월평장터를 명중시켰

48) 「전봉준공초」 초초문목

49) 일본 증추원의 『비서유찬』

다.

장터에서 점심밥을 먹던 농민군 4~50명이 쓰러졌다.⁵⁰⁾ 농민군은 경군의 대포위력을 이때까지 잘 몰랐던 것 같다. 장터의 농민군은 일시 동요하였으나 곧바로 진영을 가다듬고 삼봉으로 올라갔다.

삼봉에서 내려다 보면 황룡강 일대는 물론 함평, 나주길, 장성읍내의 정경이 모두 한눈에 들어온다. 관군의 등정을 확연하게 바라본 농민군은 진세를 확형(鶴形)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타원형의 장태 수10개를 굴리며 물밀듯이 짓쳐왔다. 농민군은 장태뒤에 숨어서 접근해 왔다. 그리고, 몸을 장태뒤에 숨기고 포를 쏘아댔다.

여기에서 장태라는 무기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① 장태는 둥글기가 닭장 같고 바깥에는 칼을 나란히 꽂았고 아래에는 바퀴 수개를 달았는데, 탄환이나 화살이 모두 여기에 꽂힌다는 설⁵¹⁾

② 평죽으로 엮어 닭의 장태와 같이 만든 것으로서 그 밑에 차바퀴를 붙인 것이며 그 속에 군사가 앉아 총질을 하게 된 것이라는 설⁵²⁾

③ 타원형으로 짚을 뭉쳐 대나무를 곁에 대고 그 밑에 바퀴를 달고 그 뒤에 엮드려 밀고 나왔다는 설.⁵³⁾

④ 타원형으로 짚을 속에 넣고 곁에 대나무를 엮었는데 길이는 10~20발 정도가 되었다는 설.⁵⁴⁾

이중에 ④ 의 설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바퀴를 달았다는 것은 산악지대에서 사용할 적에 마땅치 않으며, 또 평지에서도 이용하기 힘들다.⁵⁵⁾

어쨌든 장태는 큰 위력을 발휘했다. 농민군은 강을 건너 3면으로 포위하고 진격해 왔다. 관군이 쓰는 총알은 장태에 꽂혔고 농민군은 함성을 지르며 짓쳐 돌격했고 관군은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아직 장마철이 오기 전이어서 황룡강의 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황룡강과 그 언덕은 피로 물들었고 시체는 강과 들판에 쌓였다. 이학승은 도망치다가 신호리 장성읍내 길의 구름에 이르렀다.

이학승은 더 달아날 수없는 지경에 처해서 “나는 대장 이학승이다. 의리로 구차히

50) 「오하기문」과 「전봉준공초」

51) 「오하기문」 수필

52) 「동학사」 제2장

53) 농민군 이춘영의 손자 이규익 설.

54) 이병일의 「금성정의록」

55) 장태는 전주공방전, 남원여원치,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기록과 증언이 있다.

살 수 없으나 역적이 어찌 나를 죽이리오.”라고 말하였고, 농민군은 총을 쏘아 죽였다. 농민군은 이학승의 머리를 베어 갔다.⁵⁶⁾

그러면, 이때 양측의 희생자는 어떤 규모였던가?

농민군측의 희생자는 다음과 같다. 전봉준은 공초에서 처음 대포를 쏠적에 4~50명이 죽었다고 했다. 홍계훈을 대포 한방에 수백명이 죽었다고 하였다. 황현은 무덤 하나에 4~5명씩 17개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관군측의 희생자는 다음과 같다.

황현은 관군 7명이 죽었다고 하였으며 홍계훈은 이학승을 비롯하여 병정 5명이 죽었다고 하였으며 이선근은 지방군 3백여명에 경군 12명이 죽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봉준 공초에서는 관군의 죽은 숫자를 말하지 않고 있다.

이로 보아 관군측에서는 향병이 주로 앞장을 서서 많은 희생자를 냈는데, 홍계훈은 이 사실을 중앙에 거짓으로 보고 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는 처음부터 향병의 참여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다.

또 이때 농민군은 전리품을 노획했는데 홍계훈은 “크루프포 1좌, 회선포 1좌, 탄환 얼마 썸을 잃었다.”고 하였고, 황현은 대환포 2좌를 빼앗았다고 하였고 오지영은 대포 3문과 양총 백여개를 빼앗았다고 하였다.

농민군은 이런 노획물을 거두고 패주하는 관군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서 다시 월평으로 들어갔다. 이때의 정경을 두고 “깃발을 촌락에 가득 세우고 막 밥을 짓고 있다가 경군이 내습한다는 보고를 듣고는 나팔이 한번 울리자 군사를 재촉하여 출발했다. 말을 탄 자가 2백여명이었는데 곧바로 정읍으로 향했다.”⁵⁷⁾고 하였다.

5. 장성전투의 영향

조정에서는 이 보고를 즉각 받았다. 그리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다. 적어도 황토재 전투의 패전 때만 해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장위영군과 심영병이 투입되면 오합지졸의 농민군을 진압할 것으로 판단했다.

장성패전을 접한 조정에서는 큰 논란을 벌인 끝에 전라감사 김문현과 전라병사 이문영을 파직시켰다. 그리고 김확진을 감사로 임명하고 서병목을 병사로 임명했다.

이어 엄세영을 삼남염찰사로 이원회를 양호순변사로 삼아 현지로 파견했다.

이들은 민씨세력이 아니었다. 민씨들도 들끓는 여론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인사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반민씨들은 민씨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인물을 등장

56) 이학승의 순의비는 지금 그가 죽은 자리인 신호리 구릉에 세워져 있다. 그 비문을 최익현이 썼다.

57) 「오하기문」 수필

시켜 농민군을 무마하고 민심을 돌리려 한 것이다.⁵⁸⁾

이들은 즉각 현지로 출발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고 전주합락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벌였다.

다음의 조처는 청군(淸軍) 원병의 구체화였다. 황토재 패전 직후에도 민영준은 청에 원병요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영의정 심순택 등의 반대에 부딪혔고 서울주둔 청군의 지휘관 원세개도 결정을 못내고 있었다.

홍계훈은 장성전투의 패배를 예상하고 '차병'이 불가피함을 조정에게 보고하였다. 민영준은 이 요청을 받고 임금에게 더욱 강력하게 '원병의 필요'를 알렸다.⁵⁹⁾ 그리하여, 고종도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원세개에게 간곡하게 요구하였고 원세개도 이에 따라 천진의 이홍장에게 그 긴급을 알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청나라의 원병이 실현되었고 청일전쟁의 단서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군 원병의 구체화는 장성전투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6. 장성전투 승리의 의미

1894년 4월 23일의 장성전투는 농민군으로서는 두번째의 승리였다. 하나는 무남영군과의 전투였고 하나는 중앙군과의 전투였다.

당시 최신 정예의 군대를 깬 농민군은 사기가 크게 올라 전주성을 함락하였다. 이것은 농민군의 전술적 승리였고 한편 관군으로서는 위축을 가져왔다.

따라서, 각지의 농민군은 속속 모여들어 세력을 키웠고 다른 지역 곧 충청도, 경상도 지역으로 소문이 퍼져 용기를 더 해 주었다.

조정에서는 중앙군이 깨지는 사정을 보고 두가지 대비책을 세웠던 것이다. 곧 민심 수습책을 세워 민씨 세력의 제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를 단서로 하여 6월 21일 경복궁 쿠데타 이후 일제에 의해 민씨들은 완전히 제거되었다.⁶⁰⁾

다음으로 조정에서는 끝내 이 전투패전을 계기로 청의 원병이 실현되었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의 출병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청일양국의 각축장이 되었고 마침내 일본군의 승리로 마지막 농민군의 대일항쟁의 전면전이 이룩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장성전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단일 논문으로 연구된 적이 없었다. 물론 장성전투는 농민전쟁 전과정 위에서 살펴 보아야 하나 그 특수한 의미가 부각되어

58) 고종실록 갑오 4월조.

59) 박종근의 「청일전쟁과 조선」

60) 그러나, 그들은 부를 계속 누렸다. 우리는 기독교 세력이 누리는 잔 재주를 흔히 관과한다.

야 한다.

끝으로 말해 둘 것은 집강소 기간에도 장성은 여러모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나주와 전주·정읍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정학적인 의미도 있었다. 그런 탓인지 전봉준은 끝무렵 입암산성 백양사를 거쳐 순창으로 몸을 숨기기도 했다.

아아, 우리의 광주와 장성은 영원할진데⁶¹⁾

61) 이 부분은 이이화의 「매시지」, 「껍대기는 가라」

전남동부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

김양식(단국대 강사)

1894년 전남 동부지역(순천·광양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은 영호대도소(嶺湖大都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영호대도소는 순천에 설치되었던 농민군 본부로서, 지금까지 별로 주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농민전쟁에 대한 이해가 전봉준과 전북·충청도 일대만을 중심으로 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다소 소외된 전남 동부지역과 거기서 활동한 영호대도소의 전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영호대도소의 설치와 운영

전남동부지역은 19세기 후반 농민항쟁의 경험과 의식이 축적된 곳이었다. 광양에서는 1869년과 1889년 두 차례에 걸쳐 농민들이 봉기, 부정한 현감을 축출하고 빈민을 구제한 일이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은 1880년대에 들어와 강한 사회저항의 성격을 띤 화적이 자주 출몰하고 동학 교세도 크게 확대되고 있었으며, 1893년 3월 충청도 보은에서 열린 동학집회에는 다수의 순천·광양 동학교도들이 참여하였다.

1894년 1월에 일어난 고부 농민봉기가 사실상 해산될 즈음인 2월 25일에는 순천 농민 수천명이 들고 일어나, 간사한 아전들의 집을 파괴하고 조세법을 만들어 그 실행을 관에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부사 김갑규가 애걸하며 농민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터이니 물러가라는 말을 듣고 해산할 정도였다.

이처럼 순천과 광양은 19세기 후반 농민의식이 매우 고양돼 있던 지역이었다. 1894년 이 지역에서의 동학농민군 활동이 두드러졌던 것도 이같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894년 3월 20일 농민전쟁이 발발하자, 순천의 박낙양은 순천 광양지역 농민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는 군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후 이들은 5월 8일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해 각자 지역활동에 들어가자, 금구 출신의 김인배(1870~1894)의 지도하에 순창을 경유하여 순천지역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농민들은 6월 영호대도소를 순천에 설치한 후 폐정개혁 활동에 들어갔다. 영호대도소는 전남 동부지역 농민군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순천의 통치권은 사실상 영호대도소의 수중에 놓여 있었다. 신임 순천부사 이수홍이 8월에 부임하였을 때, 이미 김인배 등이 읍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영호대도소 농민군은 10만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였으며, 영향권하에 있던 지역도 순천과 광양을 중심으로 보성·홍양·낙안·승주를 비롯해 멀리 영남의 하동과 진주일대까지 미치었다. 조직도 매우 체계적이어서, 총대장은 김인배, 부대장은 순천 출신의 유하덕, 도집강은 승주 쌍암 출신의 정우형이었다. 그리고 각 면에는 해당 접주와 집강이 임명돼 있었다.

이같은 조직구성을 갖춘 영호대도소는 치안을 담당하는 동시에 그 동안 백성들을 못살게 굴던 관리들과 토호들을 징계하였다. 때로는 영호대도소를 유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부호들로부터 군수전과 군수곡을 징발하였다.

2. 9월 이후 영호대도소의 활동

1) 출전, 영남을 향해

6월에서 8월 동안 지역활동에 역점을 둔 영호대도소는 8월 25일 남원 농민군 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항일투쟁에 나섰다. 남원대회는 그 동안의 집강소체제를 청산하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무력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영호대도소 농민군은 9월 1일 부터 본격적인 항일전쟁에 들어가 영남방향으로 출전하였다.

농민군부대는 영호대도소 총대장 김인배와 부대장 유하덕이 말을 타고 직접 인솔하였고, 그 규모는 수천내지 수만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수건을 머리에 동여메고 ‘보국안민’이라 쓴 붉은 큰 깃발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행군하였다. 이들은 9월 2일 하동을 점령한 뒤 곤양을 거쳐 9월 17일 진주를 장악하였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영남(특히 부산) 일본세력을 축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로의 북상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진주지역 농민군 토벌차 9월 5일에 이미 부산에 있던 일본군 2개중대를 파견한 상태였다. 정부에서도 9월 25일 대구관관 지석영을 토포사로 임명, 관군을 이끌고 진주 하동으로 가서 일본군과 관군이 연합한 토벌부대와 9월 28일 부터 10월 22일까지 진주-하동일대에서 수차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들 전투에서 조직력과 화력에 밀리는 농민군은 연패하였고, 10월 22일 하동에서의 대규모 전투를 끝으로 농민군은 섬진강을 건너 광양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이때 섬진강에 빠져죽은 농민군의 수가 3천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 농민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2) 낙안전투

영호대도소 주력부대가 광양을 거쳐 하동방면으로 출전한 상태에서, 나머지 농민

군은 영호대도소의 본거지와 그 후방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순천에 잔류한 농민군은 평소 농민군에 비우호적이었고 만의 하나 농민군을 뒤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낙안을 먼저 점령할 필요성이 있었다. 낙안은 집강이 임명돼 있는 등 겉으로는 농민군의 장악지역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낙안은 군수가 성내의 아전들과 주민들을 통솔하여 성을 지키었고, 동학에 입도한 사람도 적었다.

9월 15일, 양하일이 이끄는 농민군 연합부대 천여 명은 순천에서 출발하여 선암사에 집결하였다. 땅거미가 이미 사방에 드리울 무렵 농민군 천여명은 오금재를 넘어 낙안읍성을 기습공격하였다.

손쉽게 읍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이교청에 들어가 그동안 농민들을 수탈한 아전들을 징계하고, 앞으로 필요한 군수물자를 성 내외에서 확보하였다. 낙안에서 막대한 군수물자를 확보한 농민은 다시 선암사를 거쳐 순천으로 돌아왔다.

3) 여수 좌수영 공방전

1894년 7월 임명을 받고 부임한 김철규 좌수사는 부임하자마자 군교들과 농민군 방어대책을 숙의하였다. 김철규는 부임할 때 농민군대장 전봉준의 협조를 받아 무사히 여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때 각지의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동안 묵고 쌓인 잘못된 정치를 뜯어고치고 고을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같은 일은 정부측과 화약을 맺고 지방관들의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라좌수사 김철규는 부임 즉시 농민군을 토벌할 구상을 하였고, 좌수영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여 농민군을 토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이같은 좌수영의 움직임은 자연 인근지역의 농민군 뿐만 아니라, 주력부대가 진주방면으로 출전한 순천 영호대도소에 매우 위협적이었다. 쌍방의 갈등과 대립은 점점 첨예화되고 있었다.

드디어 9월 순천 농민군과 윤경삼 등이 이끄는 현지 농민군은 연합해 좌수영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농민군과 좌수영 사이의 첫 공방전으로,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패하고 말았다. 좌수영은 영호대도소 농민군의 큰 위협세력으로 여전히 남게 되었다.

그러자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부대가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크게 패한 때인 11월 10일, 영남으로의 진출에 실패하고 후퇴한 영호대도소 총대장 김인배는 직접 농민군을 이끌고 좌수영 공격에 나섰다. 좌수영 점령은 천연의 요새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배후의 위협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인배가 이끄는 농민군 4만여명은 덕양역에 이르러, 좌수영의 정찰병을 물리치고 좌수영 뒷산인 종고산으로 올라가 성중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때 농민군은 좌수영에 고시문을 보내,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은 집안이 망할 일이니 우리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해 침략자 일본과 그 추종세력을 막아내자”라고 하

면서 협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좌수사는 이를 거부함은 물론 성중의 수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농민군은 3일간 사태를 관망하다 일단 덕양역으로 물러났는데, 이 틈을 타고 좌수영 군대는 11월 20일 농민군을 기습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좌수영군은 참패하였고 농민군은 흩어지는 관군을 좌수영까지 추격하였다.

좌수영에 도착한 농민군은 여세를 몰아 좌수영을 함락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좌수영을 포위한 농민군과 성내에 고립된 관군사이에는 생명을 건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농민군은 천여명이었고 좌수영 군대는 삼백명 정도였다. 농민군부대는 정예병을 뽑아 서문 밖에 주둔시키고 나머지는 종고산에 올라, 좌수영을 협공하였다.

상황은 점점 농민군에 의해 포위한 좌수영에 불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좌수사 김철규는 11월 25일 비밀서찰을 여수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일본 쓰꾸바(築波)함대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쓰꾸바함장은 11월 26일 1중대 전투병력을 좌수영으로 파견하고 곧이어 2백명의 일본군과 인근 섬에서 차출한 일본 어부를 추가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좌수영군과 함께 농민군을 내외에서 협공, 순천·광양방면으로 후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다음 조선을 자신의 보호국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대대적으로 파견했다. 일본은 전라도 서남단으로 농민군을 몰아 '싸쌈이'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농민군이 바다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함을 파견하여 해안을 순시하도록 하였다. 좌수영을 위기에서 구해준 일본 쓰꾸바군함 역시 이런 목적에서 파견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농민군은 큰 전력 손실을 입었고 반대로 좌수영 군대는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12월에 들어와 전세는 역전되었다. 공세적인 농민군의 기세는 꺾여 수세적인 위치로 변하였고, 점점 쫓기는 상황이 되었다. 12월 1,2일 전봉준과 김개남이 체포되고 휘하 농민군이 흩어진 사정과 맞물리면서, 영호대도소의 운명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었다.

3. 영호대도소의 최후

영남으로의 진출과 좌수영 점령에 실패한 농민군부대는 서서히 포위되는 상황이었다. 서쪽으로는 좌수영에 막히고 동쪽으로는 관군과 일본군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여수 앞바다를 초계하는 일본의 쓰꾸바군함에 막히었다. 이러한 포위 전략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 그 목적은 결국 순천과 광양을 지역적 기반으로 한 영호대도소를 괴멸시킨 뒤 잔여 농민군을 장흥방면으로 내몰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군과 일본군함이 파견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좌수영 공격에서 패하고 순천·광양으로 후퇴한 농민군은 위기를 맞고 있었으며, 김인배가 이끄는 농민군주력부대는 광양으로 몰려나 있었다. 상황이 농민군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자 배반하는 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12월 6일 새벽 4시, 한때 농민군편에 가담했던 순천 성내의 관리들과 일부 주민들은 농민군을 기습해 무수한 농민군을 체포 처형하였다.

이때 영호대도소 도집강 정우형과 성찰 권병택은 총살되었고, 서면·별량면·월등면 접주들은 효수되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94명은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 게다가 순천에 온 좌수영군은 보복이나 하듯 농민군과 내통한 혐의가 조금만 있어도 체포 연행하여 처형하였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이 순천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광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12월 7일 한때 농민군편이었던 관리들과 일부주민들은 농민군 본진을 습격하였다. 그 주동인물은 전에 군수를 역임했던 김석하(후에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음)였다. 이들은 영호대도소의 총대장 김인배와 부대장 유하덕을 붙잡아 효수하였고, 농민군 90여명을 총살하였다. 이로써 영호대도소의 조직과 휘하 농민군은 사실상 와해되었고, 잔여 농민군과 일본군·관군사이의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순천을 초토화한 좌수영군 1백여명은 7일 여수를 출발, 9일 하동 교장타에 이르러 부산에서 온 스즈끼대위가 이끄는 일본군 1개중대와 합세하였다. 이 스즈끼대위는 한반도 남부지역 농민군을 토벌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인물이었다. 이들 부대는 10일 하동에서 광양으로 건너와 다압면과 월포면에서 있던 농민군 잔여부대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좌수영을 구해준 일본 쓰꾸바군함도 10일 광양 앞바다로 와, 하포로 분견대를 파견해 농민군 정찰과 수색 임무를 담당하였다. 일본군은 조직적으로 광양지역 농민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을 섰다.

12월 10일 다압면과 월포면에서 농민군을 크게 격퇴한 일본군과 좌수영군은 오후 4시 섬거역에 집결해 있던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섬거역은 농민전쟁 당시 대장이 살던 곳이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따르던 곳이었다. 이곳에서의 전투가 광양지역 마지막 전투였다. 여기서 농민군을 크게 패해 장흥방면으로 후퇴하거나,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였다. 이날 섬거역에서 잡혀 총살된 사람은 도점주 김갑이를 비롯해 28명이었다.

섬거역에 있던 농민군을 철저히 진압한 일본군과 좌수영병은 12월 11일 광양읍내로 들어와, 잔여 농민군을 수색하여 90여명을 총살하였다. 이로써 광양에 있던 농민군은 일망타진되었고, 효수되거나 총살 내지 타살된 자는 자료에 나타난 자만 해도 최소한 240명에서 천여명이나 되었다.

이리하여 100년전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 여수와 순천, 광양은 그야말로 피바

다를 이루었고 마을마다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같은 비참한 결과를 내고 전남 동부지역 농민군 활동은 막을 내렸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순천에 영호대도소를 설치하고 활동하던 전남 동부지역 농민군은 비록 패하였지만, 1894년 농민전쟁사에 접하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큰 것이었다.

첫째, 1894년 6월에서 8월 상이에 영호대도소는 사실상 농민 통치기구였고 9월 이후에는 일종의 '농민군사령부'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다. 거기서 보여준 폐정개혁 활동과 침략자 일본에 대한 전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돋보이는 것이었다.

둘째, 일본을 상대로 한 최초의 본격적인 출병은 영호대도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8월 25일 남원대회를 주도한 김개남, 9월 14일 삼례집회를 소집한 전봉준, 9월 18일 참전을 결정한 동학교단이 군대를 이끌고 출병한 시기는 모두 10월 중순경이었다. 이에 반해 영호대도소는 9월 1일부터 출병하였고, 다른 지역 농민군이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간 10월 중순 이미 영호대도소 농민군은 진주지역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항일전쟁을 위해 최초로 출전한 농민군은 전남 동부지역 영호대도소였으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6월에서 8월 체계적인 영호대도소 운영을 통해 축적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영호대도소 농민군이 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일본군과 그들의 화력에 있었다. 수차에 걸친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농민군이 밀린 것은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여수 앞바다를 초계하며 수시로 일본군을 파견한 쓰꾸바군함의 존재였다. 이러한 일본의 간섭이 없었다면, 영호대도소 원래의 목표대로 대구와 부산을 점령한 뒤 서울로의 북상까지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장흥·강진지역의 농민전쟁 전개와 특성

우 윤(역사문제연구소 동학백추위 연구위원)

갑오농민전쟁 전개과정에서 장흥·강진지역을 주목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전투다운 전투로서 사실상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다는 점에 있다.

그러면 장흥·강진지역에서의 전투상황과 왜 그런 전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장흥·강진지역 전투의 의미를 정리하기로 한다.

1. 반농민군의 활동과 농민군의 대응

일본군과 관군은 공주 우금치전투 이후 농민군을 추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간에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을 감행했다. 농민군의 집은 불탔고, 가족은 뿔뿔히 흩어졌다. 관군의 손에 잡힌 부녀자들은 폭행을 당하였다. 관군은 농민군 지도자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몽둥이질을 하거나 총살시켰다.

농민군은 이런 추격전을 피해 점차 남하하여 광주·영암·화순을 거쳐 장흥 지역으로 물러들었다. 곧 공주 우금치전투의 패배와 일본군과 관군의 추격은 장흥지역 농민군에게 새로운 국면을 야기시켰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2차 기병을 전후로 하여 이미 반농민군 활동이 시작되어 농민군을 공격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즉 농민군의 2차 기병 무렵 강진현 이교(吏校)들이 강진현에 집강소 설치할 파거(파거)하고 수성하는 한편, 9월 중순부터는 경내 민정(民丁)을 모아 낮에는 축성하고 밤에는 함성을 질러 성을 지켰고, 10월 1일 강진병영에 설치된 집강소를 혁파하고 수성소(守成所)를 세워 농민군을 진압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민군 쪽에서는 10월 16일 장흥 사창 장터에 천여 명을 모아 수성소의 움직임에 대응하였다. 그러자 수성소에서는 10월 18일 수천명의 민군을 징발하여 병영장대에서 조련을 실시함으로써(박기현, 「日史」) 이 지역 농민군을 토벌하려는 대규모 반농민군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⁶²⁾

이는 이 지역 농민군에게 위협적인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장흥의 농민군은 논산대본영에 있는 전봉준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 논산대본영에서는 금구의 김방서로 하여금 구원군을 이끌고 내려가게 하였다. 오지영의 『동학사』(145면)에는 이렇게 적었다.

62) 11월 3일에는 강진병영 무사와 이교들이 모두 모여 영내의 농민군을 집을 휘파하기도 하였고, 11월 6일에는 수성군이 해남현까지 나아가 농민군 5명을 체포하였고 농민군의 무기들을 탈취하여 돌아오기도 하였다.(박기현의 「일사」)

“전라도 극남지방인 강진병영과 장흥부에서는 관리배들이 다시 발호하여 동학당을 침범한다는 급보가 논산대본영에 들어왔다.(중략) 장흥부사와 강진병사가 서로 밀모하고 동학대군(농민군--인용자)이 복진하고 없는 틈을 타서 앉아있는 도인(농민군--인용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침략이 심하다 하는지라 이 급보를 듣고 정히 걱정하던 차에 금구대접주 김방서가 출반하여 자원출전하겠다고 하는지라 대본영에서는 그를 곧 허하여 군사 3천을 거느리고 강진으로 향하여 내려갔다.”

이에 따라 수성군과 농민군은 서로 팽팽히 맞선 채 어느 쪽에서도 쉽게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11월 중순까지 보합국면이 계속되다가 농민군이 보강되자 11월 말부터 공세를 펼쳐 본격적인 장흥전투에 돌입하게 되었다. 황현의 『오하기문』 3필이 말해주는 장흥지역에서 타오른 대화전의 서막이 이렇다.

“11월 26일 이방언(李方彦), 이사경(李士京), 이인환(李仁煥)이 거느리는 농민군 수만 명이 회령진(會寧鎭 : 지금의 보성군 회천면)에 둔거하여 장흥부(長興府)를 넘보고 있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장흥부의 군사 천여 명이 나가 싸웠으나 참패하고 돌아왔다. 장흥부사 박헌양(朴憲陽)은 강진 병영의 서병무(徐丙懋) 병사에게 지원을 요청해 서병무는 총수 300명과 무사 100명을 보냈다. 29일에는 벽사역 부근에서 경계보던 농민군 3명을 참하고 장흥부의 군사는 웅치까지 나아갔으나 농민군은 이미 보성으로 물러간 뒤였다.”

2. 벽사역 공격과 장령성 점령

관군의 공격을 받아 보성으로 물러났던 농민군 진영은 능주·화순 쪽에서 내려오는 농민군과 합류하여 우선 경계병을 처형했던 벽사역을 공격하였다.

장흥지역 농민군 1천명은 12월 4일 오전 8시쯤 벽사역을 들이쳤다. 벽사역과 주변의 관사는 화염으로 뒤덮였다. 이때 벽사 찰방 김일원(金日遠)은 허겁지겁 가족과 함께 장흥부로 피신하였고, 자신은 병영으로 말을 달려 병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병사는 농민군이 가까이 있으니 수군(守軍)을 풀 수 없다고 말하고 초토영(招討營 : 당시 나주에 있었음)에 가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찰방은 다시 초토영으로 달렸갔다.

이렇게 관군이 허둥대고 있을 때 농민군은 그 틈을 노려 장흥부의 장령성(長寧城)을 점령하였다. 『장흥군지』를 보면, 당시 장흥부사는 농민군의 내습에 대비하여 제암산 밑 계곡에서 돌을 운반하여 장령성 보축(補築)공사를 서두르고 주변 읍에서 장정들

을 징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농민군은 12월 5일 새벽 장령성 주위를 에워싸고 총공격을 펼쳤다. 농민군의 주요 구성은 용산명의 어산접(접주 이방언) 1000여 명, 부산면의 용반접(접주 이사경) 50여 명, 웅치접 1000여 명이였다『장흥군지』)

“동학군(농민군--인용자)은 천주부적이 찍힌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주문을 외우면서 인시(寅時: 새벽 3-5시)를 기하여 동학군의 일대는 우회하여 역산리 쪽 북문에 진군하고, 일대는 좌회하여 남문에 진군하였으며 주력부대는 정면에 있는 동문(지금의 장흥극장 자리)에 진군하였다. 죽창 휘두르는 소리를 신호로 3방면에서 총 공격을 하였다. 동문에 진공했던 동학군은 성문이 굳게 닫혀 있으므로 수십명이 거목을 물고 동문을 들이박쳐 문을 파괴하고 입성하였으며, (중략) 동문이 열림과 때를 같이 하여 석대접 군은 남문에, 웅치접 군은 북문에 입성하여 관아를 불지르고 아전 집 3호 외에는 성내가 전부 소각되었다.”(『장흥군지』).

“부사 박헌양도 꼼짝없이 성을 내어주게 되자 ‘내 차라리 바로 앉아 죽겠다’ 하며 조복을 입고 선화당에 앉아 인부(印符)를 손에 쥐고 적(농민군--인용자)을 기다렸다. 적이 들어와 겁주어 빼앗고자 하거늘 헌양은 부릅뜬 눈으로 ‘나는 이 땅을 지키라는 왕명을 받았다. 죽인다면 죽을 뿐이다. 내 어찌 인부를 적의 손에 넘기겠는가’하며 꾸짖었다. 적은 칼을 휘둘러 왼쪽 팔을 잘라도 끈을 놓지 않자 총을 쏘아 죽였다. 부사 이하 4, 5백명이 죽었다.” (『오하기문』 3필).

장령성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의 농민군들은 속속 장흥 쪽으로 집결해왔다. 그리고 다음 공격 목표를 강진현과 병영으로 잡았다.

3. 강진현과 병영점령

각 지역에서 밀려오는 농민군은 강진 병영과 4십리 거리의 장흥 사창 장터에 모였다. 장흥의 농민군과 합세하여 병영을 공격하려는 작전이었다. 병사 서병무는 다급한 나머지 12월 6일 선봉진에 급박한 상황을 보고하고 구원을 간청하였다(『순무선봉진등록』 12월 8일조). 그러나 선봉진은 12월 8일까지 장성에서 나오지 않았다.

장령성을 점령한 장흥의 농민군은 6일 오전 10시 쯤 벽사역 뒤 언덕으로 진을 옮기고 오후 2시 쯤에는 장흥과 강진의 경계인 사인점(舍人店: 현재 장흥읍 송암리) 앞 들에 집결하였다, 석대들과 이어져 있는 이 곳은 강진현과 강진병영을 공격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의 요충지였다.

이방언 장군의 지휘 아래 농민군은 집강소 설치를 막았던 강진현을 1차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12월 7일 오전 8시쯤 사인점에 집결해 있던 농민군은 강진현을 들이쳤다. 현감 이규하(李奎夏)는 나주에 구원을 요청하러 간다는 핑계로 달아났다. 유생 의병장 김한섭(金漢燮)까지 가담한 수성군은 성위에서 포를 쏘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해남과 영암, 병영에서도 구원군이 오지 않았다. 동문과 남문이 먼저 부서지고 농민군이 성안으로 밀려들어갔다.

농민군은 강진현을 함락시킨 여세를 몰아 강진, 장흥 양방면에서 압박해 들어가 성의 사면을 포위하여 12월 10일 새벽 2시 쯤 병영을 들이쳤다. 농민군은 병영을 둘러싼 세 봉우리를 먼저 점거하고 일제히 대포를 쏘았다. 포화는 성을 향해 쏟아지고 화약연기는 하늘을 가렸다. 농민군이 목책(木柵)을 불지르고 성가퀴를 올라가자 수성군은 스스로 무너졌다(황현, 『오하기문』 3필).

병사 서병무는 두루마기 차림에 패랭이를 쓰고서 피난하는 사람 틈에 섞여 영암쪽으로 달아났다. 이로써 강진 병영도 점령되었다.

4. 관군의 남하와 석대들 전투

나주의 관군은 일본군 제 19대대 대장 미나미(南小四郎) 소좌의 지시에 따라 세 길로 나누어 강진으로 진격했다. 한 길은 영암 쪽, 한 길은 장흥 쪽, 한 길은 능주 쪽을 택했다.(『순무선봉진등록』 12월 12월 조). 이규태는 달아났던 벽사역 찰방 김일원을 앞세우고 12일 강진 병영에 도착했다.

이때 북상하려던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이 남하함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장흥에 집결하였다. 엄청나게 그 수가 불어난 농민군은 남문 밖과 건산리 뒷산 모정동(茅亭洞: 지금의 장흥고등학교 뒷산)에 진을 치고 있다가 관군과 일차 접전하고 퇴각하였다. 다음 날 새벽 수 만명의 농민군이 다시 성 밑으로 집결하여 일대 접전을 벌였으나 관군의 신식무기에 밀려 퇴각하였다, 15일 교도중대와 일본군이 장흥읍에 도착하여 좌선봉 이규태의 통위영군과 합세하였다. 이제 농민군과 관군의 대치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농민군은 용산(龍山)·웅치(熊峙)·부산(夫山) 세 방면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봉우리 마다 기를 꽂아 놓고 함성을 지르며 포를 쏘아대는 농민군의 위세는 장령성을 곧 쳐들어갈 것 같았다.

통위영군은 북쪽 주봉의 농민군을 막고 교도중대와 일본군은 성 모서리 대밭에 숨어 있으면서 2, 30명의 민병을 내보내 산에서 석대들로 유인케 하였다. 농민군이 자율재와 주변 계곡에서 석대들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민병을 공격하자 숨어있던 교도중대와 일본군이 양쪽에서 협공하였다. 농민군은 삼시간에 수백명이 쓰러졌다. 농민군도

응사했으나 구식 화승총으로는 관군을 쉽게 무너뜨릴수 없었다. 농민군은 자올제를 넘어 용산쪽으로 후퇴하였다.

17일에는 교도중대가 남면 40리 거리의 죽천(竹川)장터에까지 나아가 수색전을 펼쳤다. 옥산리(玉山里: 지금의 관산읍 옥당리)에 둔거해 있던 농민군 5천 여명은 포를 쏘며 관군을 공격했으나 오히려 농민군 100여 명이 포살당하였고 20여 명이 체포되었다.

장흥에 모여 복상을 꾀하였던 농민군이 이 싸움을 끝으로 주변으로 흩어졌는데, 주로 천관산에 몸을 숨겼다.

5. 해남지역의 전투

장흥전투를 끝낸 관군과 일본군이 농민군을 추격하여 해남지역에 들어왔다. 좌선봉 이규태 군대는 해남 쪽에서 위급하다는 전갈이 오자 우선봉 이두황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장흥을 떠났다. 이때 해남 현감은 이규태의 조카 사위였고, 전라우수영의 우수사 또한 이규태와는 집안간이었다. 이규태는 해남 쪽으로 달려갔다.

한편 12월 17일 장흥 옥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농민군은 천관산에 숨기도 하며 대구(大口)·칠량(七良)을 거쳐 해남 쪽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영암·강진·보성·완도·해남 등지에서 장흥으로 몰려왔던 농민군 연합부대는 다시 해남으로 이동하였다.

해남의 농민군은 이웃 강진 농민군과 연합하여 장흥전투에 참가하였고, 장흥에서 밀리자 거점을 해남으로 옮기고 해남읍성(지금의 해남군청 일대)을 점령하려고 성 주위를 포위하였다. 해남읍성이 위기에 빠진 상황은 곧 관군과 일본군에게 알려졌고, 이에 따라 제일 먼저 해남에 들어온 관군이 통위영 부대였다. 이때의 상황이 관군쪽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다.

“통위영중무참령과의 첩보에, 12월 18일 낮 12시쯤 본진에 30리 나아가서 연당리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새벽 2시쯤 해남현 가까운 접경으로 이동하여 탐문하니 농민군 수 천명이 성 바깥에 둔취하고 있다 한다.”(「순무선봉진등록」, 12월 20일조).

해남에 들어온 통위영부대는 2개 소대로 나뉘어 농민군 쪽으로 접근하였다. 농민군 쪽에서 먼저 총을 쏘며 관군의 진격을 저지했다. 관군도 이에 총과 야포로 대응하여 서로 접전을 벌였다. 밀고 밀리는 전투를 벌였으나 관군의 우수한 화력을 뚫지 못한 농민군은 주변으로 흩어졌다. 이를테면 장흥에서 밀리자 대세는 기울었지만 호남의 땅끝 이 곳마저 그냥 내어줄 수 없다는 각오로 버틴 최후의 항전인 셈이다.

이어 관군기록 (「순무선통진등록」)에 의하면 “관군의 포에 맞아 죽은 자가 8-9명 ,

생포자는 모사 전유희(全由禧), 남리역 대접주 김신영 두명이었다. 이들을 해남읍에 구류하였다.”로 적혀있어 농민군의 중요 지도자들을 이 전투에서 잃고 말았다.

다음날 교도대 병정 300명까지 해남에 들어와 농민군 색출에 열을 올렸다. 이들은 해남 우수영과 진도에까지 수색의 망을 넓혔다. 이리하여 숨어있던 농민군 지도자는 하나 하나 체포되어 현으로 끌려왔다. 불목리에서 백장안이, 칠량·대구에서 이무주·남도균·윤세환 및 농민군 130명이 체포되었다. 해남 이도면 접주 김순오·교장 박익현·집장 이은좌·별장 박사인·교수 김하진과, 진도에서 손행권·김수종 등이 체포되어 차례로 죽어갔다.

관군은 “만약 절에 숨기다가 발각이 되면 모든 사찰이 도륙되고 어목이 되는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위협을 하면서 대둔사(지금의 대흥사)의 조그마한 암자까지 뒤졌다. 이렇게 살살이 뒤지는 관군의 농민군 사냥을 피하여 농민군들은 깊은 산으로 숨거나, 배를 타고 섬으로 달아났으며, 심지어 멀리 제주도까지 몸을 피했다.

6. 원인과 의의

갑오년 말 농민군의 패배가 질어지자 일본군·관군의 토벌과 유생들의 민보군 활동이 강화되어 농민군의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규모전투를 벌여 장흥과 강진을 점령하고 석대들에서 대회전을 벌였다는 것은 갑오농민전쟁 전개에서 대단히 주목할만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강력한 전투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위의 전투상황에서 드러나듯이, 첫째 이 지역농민군의 역량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의 패배와 관계없이 보존되어 있었던 조건⁶³⁾, 둘째 2차 기병 때부터 이 지역 수성군의 반농민군활동과 이에 대한 농민군의 대응으로 상호대립·갈등의 고조, 셋째, 농민군대본영에서 농민군의 파견으로 이 지역 농민군 역량의 보강, 넷째 타지역에서의 패배로 물려온 대규모 농민군⁶⁴⁾이 지리적 조건상 배수진을 치고 전투를 벌여야 했던 점, 다섯째 일본군과 관군의 토벌작전에 포위되어 불가피하게 대응전투를 벌여야 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의 복합작용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대규모적이고 강력하게 치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농민군은 이런 조건들을 이용하여 다시 복상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결과 이 지방 관군과의 전투에서는 농민군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훈련이 잘되고 우수한 화력을 가진 일본군·관군의 연합군에게는 패배를 맛보았

63) 이는 이 지역 수성군의 저항이 강하여 농민군이 복상하여 이 지역을 공백상태로 만들 수 없었던 상황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64) 장흥지역에 물려온 농민군의 출신·계급적 성격도 장흥지역에서의 전투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되어 있지 않다.

다. 농민군의 복상 시도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갑오농민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고, 농민적 권력을 창출하면서 폐정개혁을 실시하여 당시 조선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끝내 빛을 보지 못했으며, 이후 정국과 개혁의 주도권은 완전히 농민군의 손으로부터 떠나고 말았다.

한편 이 지역 수많은 농민군의 살육과 희생을 강요한 개화파정권은 농민적 요구에 편승하여 외세의존적 불완전한 개혁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였지만 외세와 계급적 성향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 당시 조선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개화파 정권의 이러한 한계는 뒤 이은 새로운 형태의 반외세·반봉건을 지향하는 본격적 민족·민주운동을 끌어내는 역사적 조건이 되었다.

당시 객관적 정세에서 양자(개화파, 농민군)가 배타적으로 개혁의 관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상호결합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본다면 농민적 요구는 수용하지 못하고 진압으로 일관했던 개화파 정권은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민족사의 불행을 앞당기는 길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불행은 크게는 갑오농민전쟁의 강제적 물결 속에 배태되었던 것이며, 작게는 무참한 살육을 동반한 이 지역 전투의 종결에서 예견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한국근현대사는 배제와 저항의 속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